

해설과 함께 올려퍼진 독일가곡 매력에 흠뻑

문화전당 브런치콘서트 첫번째 이야기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해설...바리톤 방대진·피아니스트 김혜향 연주
'얼어붙은 눈물' '보리수' 등 가곡 14곡 선 보여...500여 관객 감동

28일 오전 11시 브런치 콘서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가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예술극장2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공연 시작 전 늦을세라 뛰어 들어가는 관객, 들뜬 마음으로 함께 온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 엄마 손 잡고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 관객 등 다양한 관객들이 모였다. 어린이부터 60대에 이르는 500여 명의 관객들이 첫 공연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날 콘서트 강연을 맡은 이는 문화심리학자 김정운씨다.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가지 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김씨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등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여수에서 화실을 마련, 그림을 그리고 있다.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그는 가곡 '겨울 나그네'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으로 강연을 이끌었으며 바리톤 방대진, 피아니스트 김혜향은 연주를 통해 가곡의 매력을 선보였다. 전편에 걸쳐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곡집 '겨울나그네'는 슈베르트가 시인 빌헬름 뮐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전부 24곡의 가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년에도 ACC에서 브런치 콘서트로 슈만과 클라라의 이야기를 담은 '시인의 사랑'을 진행했어. 그때가 이런 해설이 있는 콘서트는 처음이었죠. 올해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작년이 첫 무대라 긴장한 탓에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 이번에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공연과 곡 설명에 앞서 독일 가곡에 대해 이야기했다.

"독일 가곡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겨울나그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보리수'가 제일 즐거운 노래죠.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들은 정말 맘에 들지 않아요. 거의 30~40년 된 번역들이죠. 그래서 이번 공연을 위해 가사 번역을 전



슈베르트의 가곡집 '겨울나그네' 중 '봄날의 꿈', '고독', '우편마차' 등의 무대를 선보인 바리톤 방대진과 피아니스트 김혜향.

부 새로 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잘 음미하면 구구절절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독일가곡-리트(Lied) ▲방랑 ▲외로움 ▲열등감·외모 ▲비타미어(독일문학에서 한 시기의 경향·형식을 나타내는 용어) ▲거리의 악사 등 6개의 키워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설명 사이 사이 바리톤 방대진씨가 키워드에 맞는 가곡 '얼어붙은 눈물', '보리수', '홍수' 등 14개곡을 선보였다.

"독일의 낭만주의 가곡은 '낭만'이라는 단어 뜻처럼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 일본사람들에 의해 번역이 잘못된 거죠. 'Romantismus'를 뜻하는 한자어를 찾다 보니 '낭만'이 된 거예요. 낭만주의는 고독하고 슬프고 외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봄날의 꿈'과 '우편마차'를 감상하기 전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지난 28일 오전 11시 ACC에서 열린 브런치콘서트의 해설을 맡은 김정운 교수.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쳐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죠. 외로움을 피해서 관계 속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역설적으로 더 외로워야 될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움은 견뎌내야 하는 존재죠."

브런치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와 함께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듣고, 공연 후에는 커피와 샌드위치 등으로 간단히 점심까지 해결할 수 있어 편하다.

다음 공연은 오는 28일 뮤지컬배우 카이가 '어느 멋진 날'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클론 강원래, 국악평론가 윤종강, 발레리노 김용걸, 안숙선 명창, 피아니스트 조재혁 등을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2만5000원.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3월호



미술관·박물관·책마을로 다시 태어나는 시골 폐교들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 인생 이야기

학생 수가 급감하며 문을 닫았던 시골 학교들이 문화예술 시설로 되살아나고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3월호는 특집 '폐교들 깨어나다'를 통해 미술관, 박물관, 책마을, 힐링펜션 등 문화시설로 다시 태어난 폐교 현장을 찾아가본다.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5개년 종합계획도 안내한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제일교포 출신으로 오랜 세월 무궁적 조선인으로 살다 2005년 한국 국적을 얻은 후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김홍재 상임지휘자를 만났다. 일본을 대표하는 사이토 히데오상과 외타나베 아키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일본 대표 지휘자로 자리잡았던 그는 '영원한 스승' 윤이상 선생과의 만남을 비롯해 지휘자의 역할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새봄을 맞아 떠난 전남도매리지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을 찾아가본다. 폐교를 이용한 남포미술관이나 연흥미술관은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나로 우주센터,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등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필수 체험코스가 되고 있다. 신선한 해산물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흥으로 떠나보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이 왔지만 미세먼지로 창문을 열기가 두려운 이들을 위해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을 소개한다. 실내 분위기를 바꾸는 플랜테리어부터 스투기, 마리모, 행운목 등 공기 정화와 가습 효과가 높은 식물이 다양하다.

'지구촌 최대의 눈과 얼음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평창 올림픽의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문화행사 화보를 통해 평창의 여운을 달래본다. 이외에 다시보는 광주폴리는 패션의 생태·문화적 부활의 촉매 역할을 하는 '푸른길 옆 폴라'를 둘러보고, 문화한 기행은 조태일시문학관을 찾아 시대의 어둠을 겨누 저항시인의 자취를 따라가본다.

동네 책방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책방별곡'은 서점의 안목과 단골들의 리뷰로 성장한 영곡 독립서점 돈트북스까지 떠나본다. 가디언이 '세계 10대 서점'으로 선정할 만큼 런던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돈트북스의 성공비결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행칼럼니스트 노중훈이 안내하는 꿈의 여행지는 휴양과 예술, 두 가지 테마가 완벽하게 녹아있는 프랑스 프로방스다.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풍경을 간직한 프로방스는 미식 기행으로도 최고의 여행지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봄을 담은 달항아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1일까지 양감수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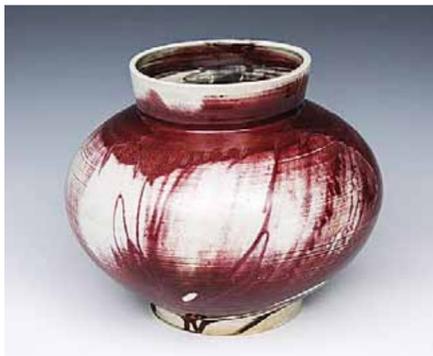
은은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는 순백의 달항아리는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 중 하나다. 유려한 곡선미와 온화한 부드러움 역시 달항아리가 갖는 매력이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광주 북구 삼각동)은 오랫동안 달항아리 작업을 해온 양감수 도예가를 초청, 2일부터 11일까지 '봄을 담은 달항아리'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순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해 장작가마에 유약을 바르지않고 흙의 느낌을 살려 구워낸 무유, 다양한 색을 집어넣어 봄의 흔적들이 수를 놓은 듯한 진사 항아리 등 달항아리 30여점을 선보인다.

광주와 화순을 오가며 작업하는 양 작가는 "달항아리의 넉넉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갖춘 단정함"이 좋다고 말한다. 장작가마의 강렬한 화염속에서 '봄의 미학'이 만들어낸 달항아리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다.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조선대학교 산업공예학과대학



원을 졸업한 양작가는 서울, 마산, 목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남원국제도예작가전(2017), 한중당대에술교류활동(중국남성문화청·2015) 등 국내외 전시에 참여했다. 전남과학대학교 화훼원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디자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0-66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령대별 가장 선호하는 세계문화

10·20·40대 헤르만 헤세 '데미안'

50·60대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연령별 가장 선호하는 세계문학은 무엇일까? 교보문고 소설전문 팟캐스트 '낭만서점'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주요 10개 세계문학전집 브랜드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10~20대에서 가장 사랑받은 세계문학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나타났다. '데미안'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모터보트 앨범을 제작해 발표하면서 10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데미안'은 40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10대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30대에서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로 나타났다.

50~60대에서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가 꼽혔다. 호쾌한 자유인 조르바가 펼치는 영혼의 투쟁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형상화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의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마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등·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